

#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연구

- A Theoret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문 원 석\* · 김 숙\*\*  
(Moon, Won-Seok) · (Kim, Sook)

## 목 차

- I. 序論
- II. 國際競爭力 概念 및 測定方法
- III. 國際競爭力 決定要因에 관한 諸理論
- IV. 最近의 研究動向
- V. 結論
- 參考文獻

## I. 서 론

세계시장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견제도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화시대의 생존경쟁에서 기업이나 국가가 낙후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자구책은 국제경쟁력의 강화뿐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국제경쟁력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지 못했으며 개념 또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국제경쟁력이 뒤지는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국제경쟁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도 혼란스러울 만큼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국제경쟁력에 대한 정립된 개념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역시도 시장상황, 경영범위, 그리고 요소의 확보에 있어서 그 개념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고 그 동안의 고정된 요소만으로 파악하던 가정들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쟁력 향상'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서도 실질적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도 결국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개념의 모호성과 방향부재"로 요약할 수 있다. 진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분명치 않았으며 타당성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제 국제경쟁력을 말할 때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내총생산(GDP)만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화폐적 수치는 그 나라 경제가 이제까지 이론 결과물일 뿐 미래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쟁력의 문제를 파악하기에 앞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로 남아 있는다면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위기감마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발전에 필수요소인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경쟁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하에 주요 국제경쟁력의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의, 결정요인, 측정지표, 최근의 연구동향을 명확히 구명함으로써 이론과 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한다.

## Ⅱ. 국제경쟁력 개념 및 측정방법

### 2.1 개념

국제경쟁력은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자체가 비교대상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석대상과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기에 일치된 정설이 없을뿐더러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적으로 개념자체가 갖는 추상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 지 못하다. 둘째, 많은 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이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원천)과 평가요인(결과)을 혼용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전자가 사전적인 '원인'이고 후자가 사후적인 '결과'라는 점을 명백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Baker & Hart, 1989, pp.5-8). 셋째, 국제경쟁력의 개념은 단일요소에 의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경제주체의 의지와 행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속성을 갖는다.(김영우, 1979, p23) 넷째, 국제경쟁력의 주체와 분석범위를 구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개념적 혼란이다. 국제경쟁력이 개념적으로 독립된 인식대상이 아니라 국가, 산업, 기업, 제품, 생산요소 등에 대하여 종속되어 있는 인식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정구현, 1996, p55)

이와 같이 개념규정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거나 등급을 매기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도 않고 완전한 과학적 객관성도 보장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주 인용되는 국제경쟁력의 개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 국제경쟁력은 경쟁력의 주체에 따라 산업, 기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시장에서의 평가를 의미하며 국제경쟁력은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전 재화·서비스의 세계시장에서의 평가를 의미하고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포함하게 된다.

전통적 국제무역에서는 경쟁력이란 특정시장에서 또는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체어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제요건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교역(domestic trade)이 아닌 국가간의 교역(international trade)에 있어서의 일국에서의 특정산업이나 상품이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일정수준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국제경쟁력의 개념을 시장점유율, 수입의존도, 무역수지의 증감상태로 측정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국제경쟁력을 평가할 때 개별상품의 입장에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요소별 변동상태로 파악하는 것이다.

OECD의 경우에도 국제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여 획득한 무역성과(trading performance)로서의 국제경쟁력과 무역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變動過程(evolution of factors)으로서의 국제경쟁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前者는 세계수출시장에 있어서의 상품의 시장점유율, 자국시장의 수입의존도, 무역수지 등의 증감상태 등으로 추정되면 後者는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의 비교와 변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국제경쟁력 평가보고서로 유명한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나 국제경영개발원(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국제경쟁력 정의를 내리고 있다. WEF는 國際競爭力을 1인당 국내총생산이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 즉, 생활수준을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력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IMD는 국제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의 능력이라 정의하고 이 경쟁력은 자산과 프로세스, 매력성과 공격성, 세계경제와 국내에서의 지역경제를 각각 관리하고 또 이들의 관계를 경제사회적 모델로 통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보고서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공통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각종 경쟁력 요인의 복합적이고 또 통일적인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 높은 국민소득을 창출, 유지하게 해주는 생산성의 향상과 적응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력은 국가, 산업, 기업차원에서 각각 별도로 경쟁력을 볼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분석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며 경쟁력 결정요인과 평가요인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자연스러운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기본적인 경쟁력이어야 한다.

결국, 국제경쟁력이란 경제주체들이 경쟁대상의 경제주체에 비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에 위치하기 위해 유무형의 경쟁력창출 자원을 축적하고, 축적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역량이 복합적으로 모아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2 측정방법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교역조건에 의한 방법, 상대가격에 의한 방법, 국제경쟁력순위에 의한 방법 그리고 상대적인 세계시장점유율의 측정방법인 사후적 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의 네 가지 정량분석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 2.2.1 교역조건에 의한 방법

무역론에서 국가단위의 경쟁력 비교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한 방법으로 (수출단가/수입단가)=(수입수량/수출수량)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수출품 1단위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품 1단위에 의하여 보다 많은 상품이 획득되면 그 만큼 교역조건이 유리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무역이익이 증대되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sup>1)</sup>

교역조건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데 商品交易條件指數와 要素交易條件指數에 의한 분석방법이 있다.

### <式-1> 상품교역조건에 의한 평가방법

$$\text{상품교역조건지수} = \frac{eP_1}{iP_1} / \frac{eP_0}{iP_0} = \frac{eP_1}{eP_0} / \frac{iP_1}{iP_0}$$

eP0 = 기준년점(0)의 수출가격      eP1 = 비교년점(1)의 수출가격  
iP0 = 기준년점(0)의 수입가격      iP1 = 비교년점(1)의 수입가격

### <式-2> 요소교역조건에 의한 평가방법

$$\text{요소교역조건지수} = \frac{eP_1}{eF_0} \cdot \frac{eF_1}{eF_0} / \frac{iP_1}{iF_0}$$

eF0 = 기준시점(0)의 수출산업 노동 생산성  
eF1 = 비교시점(1)의 수출산업 노동 생산성

1) 수출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경제는 교역조건, 즉 수출입 단가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96년 GDP 대비 수출입비중 69%). 특히 전자(반도체 포함),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되어 이들 품목의 가격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큰 실정이다. 96년 전자, 자동차, 화공품의 수출 단가가 각각 42.6%, 1.4%, 14.8% 떨어짐에 따라 교역조건이 73년 1차 에너지 쇼크에 버금가는 12.5% 악화되었다. 따라서 수출물량은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금액 증가율은 4.1%에 불과하였다. 결국 작년 한해동안 대부분의 기업은 이윤은 남지 않고 생산만을 늘리는 실속없는 경제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황인성, 제삼GDP로 바라본 경제성장, 삼성경제, vol.61, 1997,06.

그러나 이같은 교역조건지수에 의한 국제경쟁력 분석방법은 가격의 국제비교상에 제기되는 결함 및 국제간의 개별산업이나 상품에 관한 통계의 제약 등으로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 2.2.2 상대가격에 의한 방법

상대가격에 의한 분석방법으로는 일본통산성에서 주로 이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분석한다. 일본통산성에서는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OECD통계를 이용하여 OECD가맹국을 모집단으로 하여 무역수지율을 기초지표로 취하고 이 수지율의 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요인을 제거하여 수지율의 개선을 그 국가의 경쟁력 증대로 보는 분석방법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式-3> 상대가격에 의한 경쟁력측정

$$\log E = a + b\delta + c \log V - d \log P_0 + \mu$$

E : 기준년도 가격의 실질수출액을 기준년도의 상대가격으로 디플레이트한 금액

$\delta$  : 추계용으로 표본추출된 주요대상국의 수출액을 기준년도는 0, 비교년도는 1로 Dummy한 것.

V : 기준년도 가격의 실질GNP를 동년도의 상대수출가격으로 디플레이트한 금액

$P_0$  : 기준년도와 비교년도 모두 주요경쟁국 평균을 100으로 한 상대수출가격

위의 식에서 「 $-\log P_0 + \mu$ 」의 부분은 주요 경쟁상대국 평균을 100으로 하는 지수치로서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log P_0$ 는 가격요인을 반영한 것이고 잔차인  $\mu$ 는 질적 요인으로서 비가격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다.<sup>2)</sup>

2) 여기에서 가격경쟁력은 각국의 노동 및 금융 비용, 제품의 현지 소매가격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수치화가 가능한 반면에 비가격경쟁력은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측정이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비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술수준과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노사관계, 정부규제 정도, 수입국의 보호주의 추세 및 수입규제 등이다. 이 가운데 노사관계나 기술수준 등에 대해선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있다.

### 2.2.3 국제 경쟁력 순위에 의한 방법

이 방법은 리즈너(H.H.Liesner)가 EEC시장에 대한 영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경쟁상대국간의 국제경쟁력을 절대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국가의 수출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방법이며, 개별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경쟁국의 수출상품과 비교하여 경쟁력 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구체적인 산출모델은 다음과 같다.

#### <式-4> 국제경쟁력 순위결정의 算出

$$R = \sum_{a=1}^N (Fa/K) + 0.5 (Fa/K) (Fa^c/Fa^b) / (K^b/K^c) \times 100$$

$$= \sum_{a=1}^N \{ (Fa'/K) [1 + 0.5 (Fa'/K')] \} \times 100$$

여기서 N = 경쟁국의 수

Fa = a국이 일정기간중 특정시장에 수출한 특정상품의 액수

K = 자국이 일정기간중 특정시장에 수출한 특정상품의 액수

Fa<sup>c</sup> = a국이 비교년도에 특정시장에 수출한 특정상품의 액수

Fa<sup>b</sup> = a국이 기준년도에 특정시장에 수출한 특정상품의 액수

Kc = 자국이 비교년도에 특정시장에 수출한 특정상품의 액수

Fb = 자국이 기준년도에 특정시장에 수출한 특정상품의 액수

F' = Fa<sup>c</sup>/Fa<sup>b</sup> = a국이 특정수출상품의 수출신장률

K' = K<sup>b</sup>/K<sup>c</sup> = 자국의 특정수출상품의 수출신장률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는 0.5(Fa'/K')는 상대수출신장지수를 표시하며 (Fa/K)는 절대수준지수를 의미한다. 리즈너는 수출신장율보다 수출절대액에 대하여 더 큰 가중치를 적용시킴으로써 수출수준이 적기 때문에 수출신장률의 증가를 가져오는 '강한 경

쟁력 현상'을 다소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특정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타국상품에 비하여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자국 수출상품중 상대적인 경쟁력 순위를 알 수 있다.

## 2.2.4 현시적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에 의한 방법

국제경쟁력 측정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이미 실현된 무역을 통하여 나타난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지수화하려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50년대에 비교우위론에 의한 맥두걸(MacDougall)과 스텐(R. Stern)의 실증분석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랏사(Balassa)에 의해 처음 사용된 지수로서 무역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이 지수는 각국이 어느 상품 또는 어느 산업에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의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다.(박은상, 1997, p8)

### <式-5> RCA에 의한 국제경쟁력 산출

$$RCA_i = \left( \frac{EX_i}{WEX_i} / \frac{EX_t}{WEX_t} \right) \times 100$$

$EX_i$  : 비교국의  $i$ 상품 또는  $i$ 산업의 수출액,

$WEX_i$  : 세계  $i$ 상품 또는  $i$ 산업의 총수출액,

$EX_t$  : 비교국 전상품의 총수출액,

$WEX_t$  : 세계 전상품의 총수출액

만일 顯示比較優位指數가 100보다 크면 비교국의  $i$ 상품 또는  $i$ 산업의 수출시장점유율이 전상품 평균 輸出市場占有率보다 높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비교국이  $i$ 상품의 輸出競爭力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顯示比較優位指數는 특정국에서 어느 상품 또는 어느 산업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가를 나타내 준다. 따라서 이 RCA지수가 120이라는 것은 특정국의 어떤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그 나라 전상품의 세계시장에 대한 점유율보다 20%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CA지수는 무역유형, 국제분업,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제경쟁력 비교평가지수로서 顯示比較優位指數의 사용은 수입을 배제한 輸出成果에만 근거하는 것이므로 일국의 상품, 산업간의 국제경쟁력 비교평가 방법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수출보조금, 수출쿼터 등의 특별한 정책적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수출의 성과는 비교우위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RCA지수를 계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RCA지수는 과거에 이루어진 수출의 성과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수출성과에 기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의 효과도 함께 내포되어 있고 수입을 고려할 경우에도 保護貿易主義에서 오는 여러 가지 輸入制限政策이 자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Ⅲ. 國際競爭力의 決定要因에 관한 諸理論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경쟁력의 개념은 각 주체별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동태적으로 변천되어 온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과 관련해서 그 요인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여 왔다. 특히 오늘날 국제경쟁환경의 시대적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산업내 무역의 증가, 결정요인의 다원화 그리고 각 요인간의 상호연관성 증대로 비교우위 관점의 국제무역이론 설명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 그리고 경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제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시대적으로 분류, 고찰하여 보도록 한다.

#### 3.1 國際貿易理論의 接近

국제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시초는 무역이론적 접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국제무역이론적 접근은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비교생산비, 요소부존도, 기술격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에 대한 국제무역이론적 접근방법들은 경쟁력을 가지는 주체를 개별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수준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으려고 노력한 이론은 상호수요이론, 기술격차이론, 제품수명 주기 이론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론들은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대표적인 단일 요소만을 설정하고 있어서 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대부분의 무역이론이 경제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그러므로 국제무역이론적 접근방법들은 각국의 실리추구로 인한 세계경제의 다극화 현상이 유럽, 북미, 동아시아 및 태평양이라는 3개 블록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는 현대의 국제경쟁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고도화를 위해 많은 비현실 가정을 도입하였다는 제한과 설명 변수로서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면에서 포괄적이지 못하다.

다음은 국제무역이론의 국제경쟁력 접근방법을 정리해 놓은 表이다.

<表-1> 國際競爭力에 關한 貿易理論的 接近理論

국제무역이론	경쟁력의 주체	분석수준	국제경쟁력결정요인
절대우위론	개별산업	국가수준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
비교우위론	개별산업	국가수준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차이
상호수요론	개별산업	산업수준	동종산업간 교역조건의 정도
해서-오린정리	개별산업	국가수준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
레온티에프 정리	개별산업	국가수준	국가간 부존요소의 질적 차이
기술격차이론	개별산업	산업수준	국가간 동종상품의 개발과 모방에 따른 기술 격차
제품수명주기론	개별산업	산업수준	제품수명주기상의 단계

자료 : 박남규, 산업의 국제경쟁력 수명주기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1.02, 부록 p.2 재인용.

### 3.2 國際經營論的 接近

국제경영적 접근방법은 산업 혹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 특유의 요인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산업보다는 기업을 경쟁력의

3)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라 할 수 있는 *ceteris paribus* 즉, 비교대상 요인을 제외한 기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부분사용하고 있다.

주체로 강조하고 있으며 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의 개념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관점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접근방법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거시경제론적 접근방법(국제자본이동론, 종속이론), 미시기업행위론적 접근방법(독점적 우위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 내부시장이론), 미시거시통합론적 접근방법(절충이론) 등이 그것이다.(민상기, 1990, p4)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무역이론이나 자본이동론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쟁력 우위원칙과 국제경영의 새 유형인 라이선싱, FDI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같은 다양한 국제경영 전략적 접근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Franklin, 1984, p455)

첫째, 왜 기업은 해외로 진출하는가?

둘째, 현지기업의 고유한 우위요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외투자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는가?

셋째, 왜 기업은 수출이나 라이선싱 대신에 해외직접투자를 택하는가?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진출기업이 가지는 경쟁우위를 찾으려는 두 번째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투자의 각 이론들은 해외진출동기, 경쟁우위의 원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를 선택하는 이유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력을 분석하여 국제경쟁력을 분석해보면 다음 [表-2]와 같다.

<表-2> 국제경영전략적 접근의 설명력 분석

국제경영에 대한 각 이론들	해외진출 동기	경쟁우위의 원천	해외직접투자의 선택이유
국제자본이동론	○	×	×
종속이론	○	○	×
독점적 우위이론	×	○	×
제품수명주기이론	○	×	○
내부시장이론	×	○	○
절충이론	○	○	○

자료: 조동성, 국제경영학, 경문사, p.263.

한편,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관련되는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은 독점적우위이론, 내부화이론(Internationalization Theory), 折衷理論(Eclectic Theory)이 있다.<sup>4)</sup> (Kindleberger, 1969, p13)

이러한 해외투자이론은 경쟁력의 주체를 개별기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분석을 위한 수준 역시 개별기업이나 국가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들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국제적 경쟁을 수행하는 기본적 조직단위가 개별기업임을 제시함으로써 산업분석에 있어서 소홀하기 쉬운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경쟁력 주체 및 분석수준에 대한 이론적 분류를 해 놓은 表이다.

<表-3> 경쟁력 주체 및 분석수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이론적 분류

海外直接投資理論	競爭力의 主體	分析水準	國際競爭力 決定要因
종속이론	개별기업	국가수준	경제적 우월권 존재여부
독점적 우위론	개별기업	기업수준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들
내부화이론	개별기업	기업수준	중간생산물의 내부화 능력
절충이론	개별기업	국가 및 기업수준	입지특유의 우위, 기업특유의 우위, 내부화 관련 우위

자료: 박남규, 前掲書, p.5 재인용.

한편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무역이론이 개별국가를 바탕으로 산업을 분석하려고 한 거시적인 접근방법이라면 국제경영이론들은 무역이론에서 간과된 국제생산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려고 한 미시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경영론적 접근은 무역이론과 함께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근대적 이론의 기초를 형성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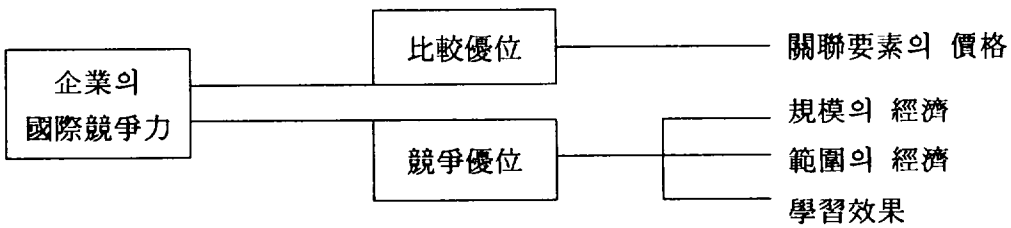
4) Charles P. kindleberger,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9, p.13. P.J. Buckley and M.Casson,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Macmillan, 1976, pp.33-65. John H. Dun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as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1, pp.80-81.

### 3.3 근대적 접근이론

무역이론과 국제경영론적 접근이론들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의 공통성은 기존 이론들과 달리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들이 코굿(Kogut), 포터(Porter), 골드스미스(Goldmith)와 클러트북(Clutterbuck), 야마자와, 建元正弘 등의 논문들이다. 코굿教授는 “Designing Global Strategies: Comparative and Competitive Value Added Chains”이라는 논문에서 국제경쟁형태(the mode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를 정의하고 기업의 國際戰略은 특정국가의 比較優位와 競爭優位를 바탕으로 결합과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gut, 1985, pp15-28)

즉, 기업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입지선택을 해야하며, 경쟁우위에 입각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국제적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競爭優位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학습효과(learning effect)에 의해 결정되며 比較優位는 기업이 입지한 지역의 요소가격(factor cost)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코굿의 국제경쟁력 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코굿의 경쟁력 결정이론의 모형



이러한 코굿의 연구는 경쟁력의 주체를 개별기업으로 보고 있으며, 분석수준으로는 국가 및 기업으로 보았다. 그리고 국제경쟁력 결정과정을 특정시점에 있어서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고려하는 요소가격과 기업수준에서 고려할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방법을 개척하여 양 우위요소의 관계와 그에 따른 경쟁형태의 관계를 밝혔으며 이 모델을 확장하면 산업차원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조동성, 1991, pp364-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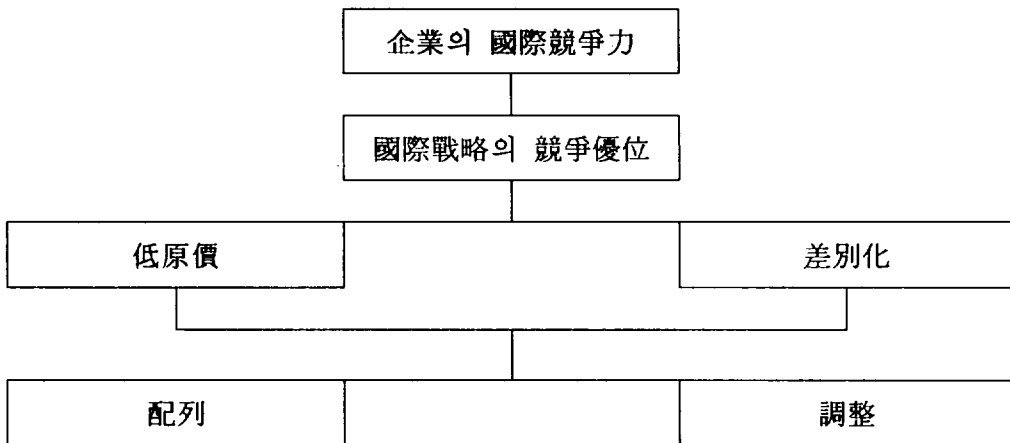
그러나 코굿의 견해 역시 경쟁우위 요소의 범위 즉, 요소별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

화되어 있다는 점과 동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제경쟁력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인정받는 포터교수는 경쟁력의 원천이 기본적으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s)에 있으며, 국제경쟁력 역시 상대적 비용우위와 차별화에 따른 경쟁우위에서 창출된다고 주장하였다.(Porter, 1986, p20) 이러한 경쟁우위는 기업이 수행하는 설계, 생산, 마케팅, 배달, 지원활동 등 개개활동에서 창출된다고 하여 가치사슬(value chain)<sup>5)</sup>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가치사슬상의 기업활동을 범세계적으로 배열(configuration)하고 조정(coordination)함으로써 경쟁력획득이 가능하다는 전략대안을 제시하였다.(Porter, 1985, pp36-48)

포터는 경쟁자와의 가치사슬상의 차이가 경쟁우위의 중요한 원천이 되며, 이러한 가치사슬의 차이는 기업의 상대적 비용위치와 차별화의 근거를 창출한다. 이때의 가치사슬이란 총가치로 구성되는데 이는 다시 가치창출활동과 이윤으로 구분되며 가치창출활동은 다시 本源的活動과 支援活動으로 구분된다. 본원적 활동은 제품의 물리적 산출과 판매, 소비자에게 전달, 사후관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적유통(Inbound Logistics), 작업활동, 외적유통(Outbound Logistics), 마케팅과 판매,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활동은 본원적 활동과 다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요소획득, 기술개발, 인적자원관리, 기업의 하부구조로 구성된다. 이러한 포터 이론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포터의 국제경쟁력 결정이론



5) 포터교수의 가치사슬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개별활동을 분리하여 기업에서 투입단계에서 산출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가치창출과정을 나타내 주는 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터의 이론은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분석범위를 전세계적 범주로 확산시켜 경쟁력의 주체를 개별기업으로 보고 접근함으로써 경쟁우위의 원천을 세분화하였고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경쟁우위의 원천과 경쟁전략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경쟁력의 원천에 관해 체계적인 분석은 못했지만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은 고려해야한다는 주장한 연구로서 골드스미스와 클러트북, 그리핀, 야마자와 플레밍과 창, 그리고 建元正弘 教授 등의 연구가 있다. 각각의 연구에서 제시된 경쟁력 결정요인들은 살펴보면 골드스미스와 클러트북(Goldsmith & Clutterbuck)의 연구에서는 국제경쟁력은 과거 10년간 자산성장률, 자산회전율, 이익성장률 및 산업내 주도기업으로서의 명성 유지여부와 소비자로부터의 좋은 평판 유지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Goldsmith & Clutterbuck, 1984)

그리고 그리핀(Griffin)의 연구에서는 비교생산비(comparative cost), 생산성, 수요조건, 자국에 대한 시장국의 수입결합도, 운송비의 저렴 및 운송의 편리, 세의무(Custom Duties)를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보았다.(Griffin, 1924, pp46-53)

야마자와의 연구는 자본노동비율(capital-labor ratio), 숙련-비숙련 노동비율, 연구개발, 규모의 경제 차별관세(discriminatory tariffs), 수송비, 제품차별화, 경제구조상의 차이, 기타 수입차별화 조치, 국제경제관계 등을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주장하였으며 플레밍과 창(Fleming & Tsiang)은 국제경쟁력을 수출시장점유율로 파악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 그리고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였다.(Fleming & Tsiang, 1956, pp218-248)

한편 建元正弘 教授 등의 연구에서는 수출에 미치는 제 요인을 국제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 그리고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 중에서 유리한 요인이 국제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을 다원화하여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데 있어서는 일면의 타당성이 있으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輸出競爭力 觀點에서 결정요인을 다원화하였기에 기업경쟁적 요인이 다소 결여된 것이 사실이며 그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체계적 설명에는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3.4 현대적 접근이론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및 산업전반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연구가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적 경쟁의 현실과 신흥공업국의 경험처럼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국가의 특화패턴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계속되었다.

마이클 포터는 '國家의 比較優位(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1990)'라는 著書에서 12개 국가의 100개 산업을 연구하여 국제경쟁력이 '산업이나 기업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하는 특유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창출되는 것'(Porter, 1990, p.73)이라 주장 경쟁력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제시하였다.

포터는 국가경쟁력(Porter, 1990, p73)을 평가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형성하는 주체는 기업이 속한 환경, 즉 산업구조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개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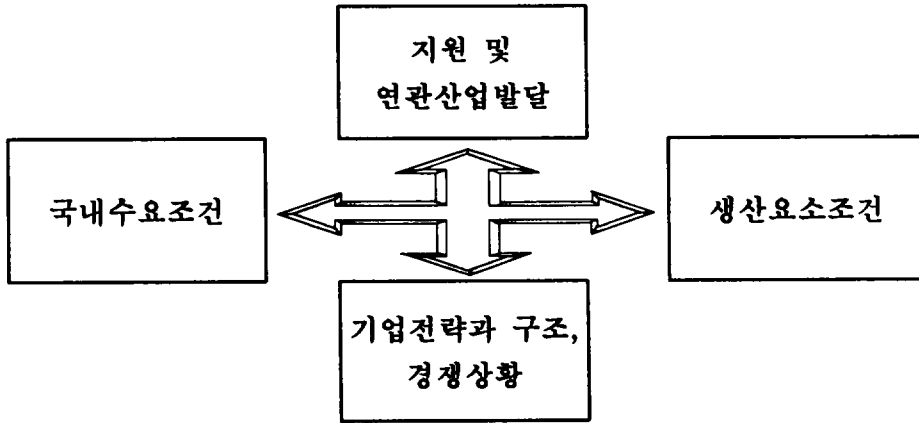
기존 국제무역이론적 결정요인 분석에는 요소의 부존도가 국제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보았지만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요소창출이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Porter가 주장하는 요소란 인적자본, 물적자본, 지식자원,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되며 성질에 따라 기초요소와 고급요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차별화 제품과 독점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요요소인 고급요소의 우위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쟁력의 관건은 고급요소의 창출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포터는 생산요소 조건 외에 기업간의 경쟁관계나 전략, 연관 및 지원산업의 발달정도, 수요조건 등을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요인으로 열거하고 경쟁력요소들의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나 우연히 부딪치게 되는 기회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sup>6)</sup>로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은 경쟁력 결정이론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제시했다.

6) 여기서 포터의 입장은 국가는 절대 경쟁력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없다는 명제로 요약된다. 이유는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를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determinant)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influencer)으로 파악하였다. (강동근, 국가경쟁력 개념과 논쟁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6., pp.20-21.



<그림-3> 포터의 國家競爭力 다이아몬드 模型



자료 : Porter, M. E, ibid., p.72.

포터가 제시한 다이아몬드이론의 네가지 요소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i) 생산요소조건 : 한나라에 부존되어 있는 자연자원과 같은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 항만, 통신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숙련된 노동력 등을 경쟁력 형성에 포함시키고 있다.

ii) 국내수요조건 : 국내소비자의 욕구나 필요에 대해서 해외기업보다 국내기업이 더 높은 관심을 갖게 되고 보다 잘 이해하거나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내수요의 특징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수요의 세부구조, 국내소비자의 까다로운 요구, 선도적인 국내소비자의 욕구과약 등을 특징으로 한다.

iii) 지원 및 연관산업발달 : 경쟁력있는 지원업체나 공급업체가 존재할 경우 협력이 용이하여 혁신의 가능성이 커져 보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킴으로서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v) 기업전략과 구조, 경쟁상황 : 기업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방식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목표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각국의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이 경쟁력확보가 가능하며 국내의 치열한 경쟁은 기업들의 혁신이나 개량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며 이러한 국내경쟁 상황은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이루어 낼 수 없는 경쟁우위의 창출 및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김종식, 1996, p4)

특히 포터교수는 다이아몬드이론에서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요변

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특정산업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에 대해 인식, 해석, 반응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절대적인 국내수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내수요변수에 의한 현지기업활동은 한 기업의 생성, 조직, 운영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전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포터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기업의 경쟁력이 동태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기업의 경쟁우위와 전략을 결합시켜 설명하고 무역이론적 접근이나 국제경영론적 접근과는 달리 산업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제경쟁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Home Base의 개념<sup>7)</sup>을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 정의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모델은 다양하고 상세한 실패와 실증자료들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튼튼히하고 미국과 같이 국내시장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었으나 다국적 기업이 활발히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큰 한국과 같은 개도국의 산업경쟁력을 설명하는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내시장이 좁은 작은나라 기업의 수출성공을 설명하는데에 적합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을 해외요인까지 포함시켜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터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내에서 조동성교수는 국제경쟁력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국제경쟁력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개발한 다이아몬드 기존모형을 수정한 한국형 다이아몬드모델을 제시하였다.

조동성교수의 모형은 본질적으로 포터의 모형과 유사하나 다이아몬드 모델이 산업의 경쟁력수준을 지탱하는 물적요소와 경쟁력수준을 변화시키는 인적요소와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한 것에 인적요소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력의 결정주체로 가미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여 이를 내부요인으로 분류한 수정모델이라 할 수 있다.

조동성교수의 한국형 다이아몬드 모델의 이론적 틀을 살펴보면 한 나라의 국제경쟁

7) home base란 국가개념과 거의 동일한 것이지만, 한 국가의 어떤 산업에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기업의 전략이 수립되는 곳, 핵심부문의 공정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필수적이며 적절한 생산기술이 있는 곳의 세가지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home base라 하는데, home base에서의 기업은 무역과 FDI, 그리고 다른 여러 형태의 활동의 조합을 잘 맞춰서 범세계적인 범위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제고를 의미한다.

력은 그 나라가 가진 물적자원, 경영환경, 관련산업, 국내수요라는 네 가지의 물적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적요인을 처음부터 모두 갖추고 경제발전을 시도하는 나라는 없다. 어느나라든 그 나라의 국민들인 勞動者, 政治家와 行政官僚, 起業家<sup>8)</sup>, 專門經營者와 技術者들이 위에 언급한 물적요인들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나라안에 존재하는 8가지 변수 외에 오일쇼크나 올림픽과 같은 외생변수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앞서 열거한 9개 요인이 한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면 그 나라가 가진 국제경쟁력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나라가 겪게 되는 국제경쟁력의 변화모습을 동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 나라가 가진 국제경쟁력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결정하는데 경제수준은 일반적으로 후진국 → 개도국 → 중진국 → 선진국의 단계를 거쳐 변화한다. 그런데 위에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9개 요인이 모든 단계에서 제각기 1/9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 하는 단계마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요소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sup>9)</sup>

이러한 조동성교수의 국제경쟁력 분석모델은 한국산업에서 국제경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면서 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온 주요 산업들의 발전 및 변화패턴을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분석하여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시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도있는 정책제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8) 起業家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직접경영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을 일으켜 세웠다는 뜻에서 創業家라고도 하며 通常전문경영자와 구별된다.

9) 후진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과 근로자밖에 없는 나라이다. 이같은 나라에 경제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갖춘 정치가가 지도자가 되어 행정관료와 함께 근로자와 물적자원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형성하게 되고 그 나라는 개도국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중진국은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주도권이 기업가에게로 넘어가고 이들이 왕성한 투자의지를 갖고 여러 관련 및 지원사업으로 진출하면서 형성된다. 그러나 선진국은 경영자, 기술자, 디자이너 등 전문가 그룹이 바탕을 이어받아 기업활동의 전면에 나서고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튼튼한 국내수요가 형성되는 시기가 된다.

## IV. 최근의 연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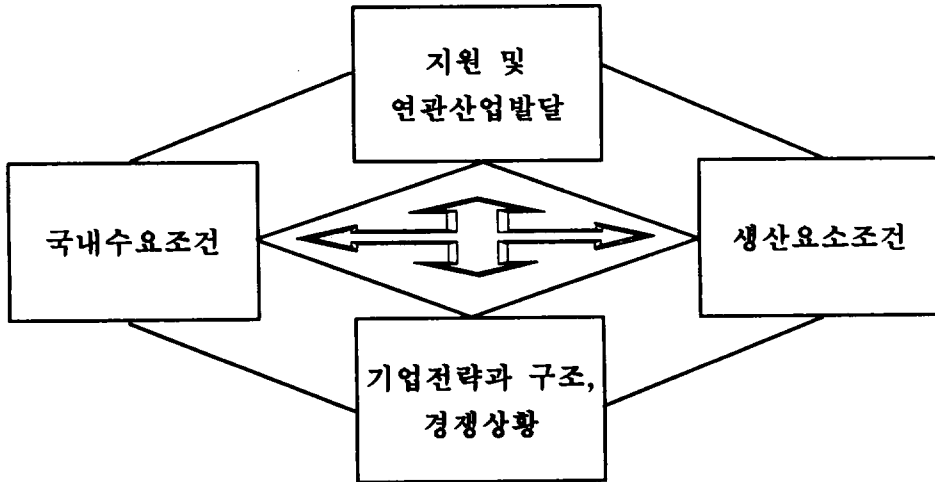
기존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이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들을 제시한 연구는 많으나 국제활동이나 경쟁력 핵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주 미비한 편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국제경쟁력이란 결코 경제적인 힘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정치와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요소들로 구성된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국제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核心力量과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활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 시도하고 있다.

### 4.1 최근의 대표적 연구

러그만教授는 버베크, 문취창 教授와 공동연구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처럼 경제적 대국이 아닌 경우에 글로벌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포터모형에서 제외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MNC)에 의해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더블 다이아몬드이론을 제시하였다.(Rugman, Vebeke, & Chang, 1997, pp97-114)

국제경쟁력의 전제조건으로 세련된 국내수요 조건의 존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포터의 주장에 대해서 러그만교수 등의 연구는 세계화 시대에서 반드시 국제경쟁력의 확보과정이 국내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쟁우위가 치열한 국내경쟁을 통해 창출된다고 하나 관련산업 및 지원산업이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수평적 연관을 통해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려는 전략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경쟁환경변화가 제공하는 기술, 인력자원 등의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모델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더블 다이아몬드모형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4>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



한편, 90년대 들어 프라하라드와 하멜教授(Prahalad, C. K & Hamel, G.)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자산 또는 능력을 核心力量(Core Competence)<sup>10)</sup>이라 하여 핵심역량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핵심역량은 다양한 생산기술의 조정과 다수의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의 종합적인 능력으로 파악하고 있어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核心的 競爭優位 能力, 즉 核心力量을 찾아서 집중투자하여 지속적으로 國際競爭力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핵심역량이론은 기업의 성공이 기업내부의 특수한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resource-based view)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핵심역량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자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원의 의미는 핵심역량을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불리듯이 특정 제품이나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10) 최근에는 핵심능력(core capabilities)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는데 이는 핵심역량과 핵심역량을 실행하는 전략적 과정(strategic process)을 결합한 개념으로 핵심역량이 만들어지는 동태적인 과정을 좀더 강조하는 것이다. 핵심역량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 내부 역량으로서 총체적이고 본원적인 기술, 지식 및 능력이 하나의 일관된 역량으로 결집되어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성공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까지 성공적으로 보장해주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과 구별될 수 있는 특유한 지식, 능력, 기술적 노하우(know-how)"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역량은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자원과는 달리 쓰면 쓸수록 크게 자라나는 것이며, 유사한 역량을 결합하여 더 큰 역량으로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sup>11)</sup>

그러나 프라하라드와 하멜의 이론에서는 핵심역량을 어떻게 찾고 개발하느냐는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개도국 기업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또 다른 국제경쟁력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 각국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여 경쟁력 순위발표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의 IMD보고서<sup>12)</sup>와 세계경제포럼의 WEF보고서<sup>13)</sup>가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sup>14)</sup>은 슈테판 가렐리(Stéphane Garelli)교수가 제기한 보고서에서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내총생산(GDP) 등 화폐적 수치로만 國家의 힘을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국제경쟁력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WEF와 슈테판 가렐리教授<sup>15)</sup>의 보고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수준은 화폐적 수치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고에서 경쟁력 측정을 시도했으며 소비자물가와 물가상승률, 환율변동, 교육투자 등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되는 200여 항목의 자료를 모아 경쟁력의 분석을 시작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경제성장을 유지·발전시키는 국가의 경제능력으로 정의하고 국제경쟁력 평가의 체계적 틀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11) 장승권, 정명호, 한국 대기업의 당면과제 '코어 컴피턴스', 월간('96.10) 삼성경제 vol.53를 참고하기 바람.

12) IMD보고서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국제경쟁력의 개념적 틀과 체계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3) WEF와 IMD는 그동안 함께 보고서를 만들었으나 경쟁력에 대한 개념규정의 차이와 이에 따른 방법론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 WEF가 2년전부터 별도 팀을 구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14)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1000여개 회사들이 매년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으로 3M, AT & T, VOLVO 등 세계 우수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71년부터 매년 다보스에서 열고 있는 회의가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 회의에는 경제인 뿐 아니라 40~50개국 정상, 과학자, 언론인, 노동운동 지도자 등 각계 인사 2000여명이 모여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해 토론한다. WEF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교환과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회원들간 네트워크를 가장 중시한다.

15) 가렐리교수는 WEF에서 IMD로 6년전에 자리를 옮겼으며 독자적인 IMD 국제경쟁력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이후, WEF경쟁력보고서는 매년 거시경제측면 뿐만 아니라 무역 및 금융시장 개방 정도, 국가재정의 역할 및 정부규제, 금융시장 발전정도, 산업기반시설, 기술수준, 기업 경영의 질, 노동시장 신축성 등 경쟁력 요인들에 관한 국가별 평가를 취합하고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각국의 특정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국제경쟁력을 평가한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WEF는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이를 위해 과거의 데이터들을 미래전망에 맞춰 수정하고 가중치도 조정한다. 그리고 381개의 기준 항목에 대해 통계적 모델을 도입하고 지표 중 1/3에 해당하는 155개 항목에 걸친 설문조사 자료는 전세계 49개국 3,000여명의 주요기업인들이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경영환경의 질을 계량화한 내용으로 매우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대표적 문제점은 너무 과거의 성과에 정량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으며 설문조사를 절반 가까이 반영해 조사가 신속히 변하는 인식이나 마인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각국의 경제를 교차 설명하는 데에는 약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보다 국제경쟁력을 세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통합하였으며 WEF가 발표하는 경쟁력 순위와 지수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지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2 최근의 연구동향

최근 국제경쟁력에 관련되어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여러각도의 실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발표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본 최근의 국제경쟁력 관련 연구동향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

먼저 다양한 국제경영활동은 국제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을 구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영의 유연성을 배양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많다는 점이다.

더닝(1993)은 포터의 모델이 세계경제를 통합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과 판매가 각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러그만과 디크르즈(1993)는 구내요인만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해외요인을 간과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캐나다의 예를 들어 기업의 해외

투자나 수출입 등의 활발한 교류가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Hodgetts(1993)는 멕시코와 미국경제와의 관계가 멕시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고, Cartwright(1993)는 기업의 해외활동이 뉴질랜드기업의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종식, 1996, p.24)

그리고 김종식(1996)은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에게는 국내의 활동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국내요인 뿐만 아니라 해외요인 까지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국제경영활동을 통해 정부의 규제, 관세 등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요소조건을 활용하면 해외요인도 국내요인 못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의 국제경쟁력 연구보고서나 논문들의 특징은 정부의 규제완화, 또는 민영화 등 정부역할의 적절한 조정이 국제경쟁력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는 점이다.

Fields(1994)의 연구에서 일본이 해외에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말미암아 혁신에 실패하고 있으며, 일본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체제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비용과 국제경쟁력의 관계가 반드시 정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를 보인 연구들도 있다는 점이다.

1994년 2월 European Industrial Relation Review에서는 독일의 노무비(labor cost)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단위당 노동생산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독일의 국제경쟁력은 IM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5위의 국가이다. 따라서 노동생산비가 국제경쟁력과 해외투자입지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비교우위론적 관점의 이론들이 노동생산비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학문적 흐름과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경영전략과 관련된 내용의 국제경쟁력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다는 점이다.

러그만과 디크르즈(1994)의 연구는 기업전략 비교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의 원천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관계에서 찾고자 시도한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텔레콤과 알카텔의 전략을 5-Partners Model을 통하여 비교하고 있는데, 프랑스텔레콤은 협력지향적 전략을 사용하고, 알카텔은 경쟁중심적 전략을 사용한



다고 하였다. 이 연구분석의 틀로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5-Partners Model인데, 이는 사업네트워크 구조하에서 경쟁자, 소비자, 정부, 공급자, 네트워크 협력자 등 5개 협력자와 협력관계구축이 바로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하여 전략과 조직구조 모두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김종식(1996)의 연구에서는 삼성의 성공과정을 예로 들어 유연성이 있는 경영전략의 구사를 통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였는바 그 내용은 국내요소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해외생산기지를 활용하여 기업내부에서 국내와 해외와의 수평적 및 수직적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삼성이 국가간에 나타나는 생산요소가격이나 부존자원의 다양한 차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 V. 결 론

세계는 국가간 장벽이 약해지면서 무한경쟁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개도국들도 자국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요즘 국제정세이다. 경쟁력과 관련된 최근의 이론적 정책적 관심은 개념의 적용 범위를 국가, 지역차원으로 확대한 국제경쟁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특정 저자의 견해나 기업의 사례연구로부터 도출된 방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고, 그 중에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많아 실제 개념정립에 도움을 주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경쟁력의 개념정립의 혼란을 극복하고 그 결정요인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국제경쟁력 결정체계와 요인에 대한 정리와 검토과정을 통해 정의, 결정요인, 측정지표, 그리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명확히 구명함으로써 이론과 정책의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최근 연구의 흐름은 기존의 세계환경에서 비교우위, 입지우위 등 단순하게 측정되던 국제경쟁력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고

려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 역시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요소를 각각 분석단위화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 참 고 문 헌

1. Micheal J. Baker & Susan J. Hart, Marketing & Competitive Success, Philip Allan, 1989
2. J. M. Fleming & Tsiang. S. C, Changes in Comparative Strength and Export Share of Major Industrial Countries, IMF Staff Paper, Vol.4 no2, 1956.
3. R. R. Frankl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5th, ed., Cincinnati : South-west Publishing Co., 1984.
4. W. Goldsmith and Cluterbuck, D., The winning Streak: Britain's Top Company Reveal Their formulars for Success, Weidenfeld & Nicolson,1984.
5. C. E. Griffin, Principles of foreign trade, N.Y, The Mac Millian, 1924.
6. C. P. Kindleberger,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9.
7. B. Kogut, Designing Global Strategies: Comparative and Competitive Value Added Chains, Sloan Management Review, 1985, Summer.
8. M. E. Porter,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 The free press, 1980.  
-----, Competitive Advantage, The Free Press, 1985.  
-----, Competitive in Global Industrie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6.  
-----, From Competitive Advantage to Corporate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Vol.65, 1987.May/June  
-----,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 The Free Press, 1990.
9. A. M. Rugman, Alain Vebeke & Moon. H. Chang, The generalized double diamond approach to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ch in global strategic managements, Greenwich, CT:JAI Press.
10. 문휘창, 한국과 싱가포르의 글로벌 경쟁력의 일반화된 더블다이아몬드 접근, 국제경영학회 97년도 1차학술발표회, 국제경영학회, 1997.4.26.
11. 정구현, 국제경쟁력과 국제경영전략, 전환기의 경영환경과 경영이론, 한림대학교부설 한림경영연구소편, 1991.07.

- ,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경영학연구 vol.23, 1994.02.
- , [한국기업의 다각화 전략과 국제경쟁력], 한국경제연구원, 1996.
12. 조동성,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원천, 서강Harvard Business, 1990. Jul/Aug, 한국경제신문사.
- , [국가경쟁력], 매일경제신문사, 1992.
- ,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의 조화와 균형, 21세기 한국의 국가정책과 체계론적 사고, 한국전략경영학회 공동학술발표회, 1997.05.09.
13. 김영우, 국제경쟁능력, 대왕사, 1979
14. 정구현, 한국기업의 다각화 전략과 국제경쟁력, 한국경제연구원, 1996
15. 박은상, 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산업경제, 산업은행, 1997
16. 민상기, 해외직접투자이론 모음집, 서울대 경영대학, 1990